

만남

2019년 4월
통권 17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가시나무새-----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전쟁 지역에서 애쓰는 의료인과 그 협력자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 지역에서 애쓰는 의료인들과 인도적 협력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시나무새

이제는 벌써 흘러간 옛 노래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 ‘건축학 개론’ 주인공들처럼 ‘마이마이’나 CD 플레이어를 끼고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하덕규 작사·작곡, 조성모 노래)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노래가사 내용이 상당히 시적이고 철학적이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당신이 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당신에 설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음미할수록 수궁이 가는 가사구절입니다. 헤아려보니 참 그렇습니다. 내 속에 뭐가 그리 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의 내가 있는가 하면, 때로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속 좁은 내가 있습니다. 때로 시속 500킬로의 TGV 같이 성급한 성격의 내가 있는가 하면, 때로 나무늘보보다 더 느긋한 내가 있습니다.

때로 비단결보다 더 고운 너그러운 천사 같은 내가 있는가 하면, 눈빛이며 얼굴이 무섭고 기괴한 사탄 같은 내가 있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천사로 산다 할지라도 내일 사탄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우리네 삶입니다.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 그리고 또 인내입니다. 심호흡하고 또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우는 것입니다. 수시로 내 안에서 유혹을 불길을 지피는 사탄을 몰아내는 작업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대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다름 아닌 깨어있음입니다. 말씀 안에 늘 살아있음입니다. 보다 자주 성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 때문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꾸준히 인내할 수 있는 것, 꾸준히 심호흡하는 연습을 할 것, 이런 일들이 우리를 늘 깨어 있게 만듭니다. 함께 깨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루카 23,34-3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9장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부활시기에는 부활시기 성가를 선택하십시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수난에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 주님, 당신의 수난에 저희의 기도가 작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3 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 37 말하였다.



- 23 37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97년 9월 16일에 있었던 명량해전을 골격으로 삼아 제작한 한국영화, ‘명량’이 온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 되었던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을 받은 후에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와 결단력과 지혜를 보고 감동을 받은 탓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고 외쳤던 명장이 이순신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수군이 나누는 대화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알까?” “그것을 모르면 호로자식들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닌 수난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걸음을 멈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해 수난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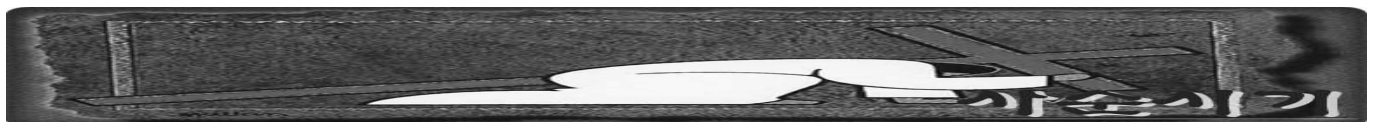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89장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부활시기에는 부활시기 성가를 선택하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하선화 세실리아)

창녕 본당은 1949년 7월 26일 본당으로 설립되어 올해 70주년을 맞고 있으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본당주보로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 본당 소공동체는 8개 구역, 2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교중미사 후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구역장들은 소공동체 평의회를 개최합니다. 고암구역은 평의회에서 논의된 공지사항과 길잡이를 활용하여 매달 둘째 수요일 반원들의 가정을 순회하며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본당의 주요 행사는 소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본당의 날 체육대회 행사와 성탄전야 행사 등을 준비하고 공연경연대회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암구역은 전입교우로 이루어진 더 케이 실버타운 입주자 반과 기존 구역 신자 20여 명이 모인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암구역은 지난 성탄전야 행사에서 반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십만 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타 구역에서는 반원들이 줄어들어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 구역은 전원생활자와 귀농으로 인한 전입 인구 증가로 반원들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여서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입자가 오면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원들은 가정방문을 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여 함께 하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병자성사 대상자와 병자 영성체 대상자를 파악하여 신부님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협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공동체가 장소 문제와 반원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반에 함께 할 반원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공동체가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쉬는 교우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고 새 교우들이 성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본당 설립 70주년 역사에 맞는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 풍요로운 삶에 가려진 ‘빈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빈곤의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빈곤은 고스란히 대를 이어 물려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사회는 풍요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소비 수준을 살펴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빈곤을 부지런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기도 하고, 끝없는 경제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의 ‘소비사회’는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자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량생산으로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사회는 쌓여있는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소비를 인공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와 소유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욕망은 광고와 마케팅 기술에 의해 더욱 더 정교해지고 더욱 부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나 막연한 믿음과는 달리 인간이 경제적 선택(특히 소비)을 할 때도 그러하고 정치적 선택(특히 선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택들이 주체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 그 정보의 대부분은 광고와 정치 선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선택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풍족한 소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와 시장의 강제에 의해 억지로 요청된 것일 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와 자연스러운 욕구를 넘어서서 사물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마치 자신인양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물을 가지면 자신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환상에 기초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소비사회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비판하던 우상 숭배, 특히 물신(物神) 숭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끝없는 경제 성장’입니다.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끝없는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의 덫에 걸린 사회를 극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교의 가난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 하나가 되어야 할 신앙인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선교사 없이 스스로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운 교회입니다. 그 계기는 조국과 사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조선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학, 천주교 교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신앙과 복음에서 무엇이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를 찾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도 가진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사제를 만나 고해성사와 미사에 참여하기를 애타게 바랐습니다. 양반과 평민, 천민의 구분 없이 참 형제요, 자매로 지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조상제사라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충돌했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던 신분제도와 충돌했습니다. 왕족에서부터 양반,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우들은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제들은 교우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교우들은 사제를 대신해 잡혀갔던 선조들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고, 한 분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삶으로 살아낸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보라는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심지어 주교님까지도 신앙인도 아니라고 비난하는 수도자와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수라는 이름으로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주교님과 사제까지 반미, 종북이라며 매도하는 이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제들과 신자들 중에는 아직도 하느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분리시키려 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신분의 차이가 신자들 서로를 참 형제자매로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이 땅의 순교자들은 신앙이 저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부조리를 복음으로 밝히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서 사회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교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모토 아래, 모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12. 낙수효과

기업이 잘돼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언뜻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업이 잘돼야 서민이 잘된다는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라고 부릅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항아리에 물이 차서 넘치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물이 흘러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이론은 검증이 안 된 가설이자 우리 사회의 통념일 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업이 잘되는데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논리와 그것에 바탕을 둔 현실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 시장으로 부추겨진 경제 성장이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견해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와, 지배적 경제제도의 신성시된 운용방식을 무턱대고 순진하게 믿는 것입니다!”

1997년에 발표된 영국 주교회의의 가르침 ‘공동선,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의 비판은 더욱 신랄합니다. “경제 법칙의 당연한 귀결로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지면 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개선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의 주장은 실제 경험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고자 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이 잘된다고 곧바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서민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조정해야 하고, 또 복지 제도를 더욱 더 보편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합니다. 진짜로 서민들의 삶이 걱정이 된다면, 연대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이혜정)

당신 앞에 엎드린 작고 작은 내 모습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떨리는 입술로 당신을 사모하며
가슴으로 애태우며 불러본
귀하고 귀한 당신의 이름.



메마른 대지에 쏟아진 빗물처럼
당신을 향한 간절함은
미명 속에 뿌려진 가슴앓이의 흔적이며
크고 작은 음성 속에 따스함으로
삶속으로 스치듯 들어오시는 당신의 흔적.

쓰러질까 염려해주시며
부르짖다 지쳐있는 연약한 딸에게
뜨겁게 쏟아 내리는 눈물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간절함이 사무쳐
하늘 끝을 향한 한 송이 꽃처럼
저는 이렇게 당신을 사모하오니
후일 당신의 품에 안길 그날이 사무쳐
뜨겁게 두 볼을 타고 내리는 기쁨의 줄기에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며
연약하면 할수록
애태우며 솟구친 사모함 앞에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뜨거운 감사의 눈물뿐입니다.



질문

아빠가 싫습니다. 증오합니다.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
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하고 말하는 등 온갖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이유도 없이 맞고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
로 가족들을 휘어잡으려 했지요. 제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려고 하는 등 평
생 잊지 못할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하는 생각에 수 없이
죄송하다고 빌며 비위를 맞춰주고 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항상 죄송하
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습니
다. 더는 아빠라 부르기 싫고 연락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부모
님께 효도하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빠와 연락을
끊고 피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빠는 죄인이 아닌가요?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자매님의 힘겨움이 느껴집니다.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공부하
고 자신의 갈 길을 가려는 자매님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폭력적
인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오
랫동안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대개 감옥 안 죄수들처럼 됩
니다. 특히 폭력적 간수들 아래 사는 죄수들은 정신적으로 노예적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흔히 독재정권 아래 소시민들이 분열증적 심리적 부작용을 갖는 것과 같이,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질 가
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그런 아빠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
회에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공동체 분
열을 일으키기에 사랑을 실천하고 미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를 진
부모가 자식을 폭언과 폭력으로 병들게 하는 경우,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미워해야 합니다. 미움이란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
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매님이 그런 아빠에 대한 미움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외려 그런 현상이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경우이며, 또 다른 폭력적
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을 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미운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아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빠가 미우면 미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미운 감정을 토닥여서 풀어줘야 합니다. 만약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죄책감을 갖지 말고 분노 해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억압하고 없애려 하면 자칫 신경증적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매님이 독립하고 싶어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가정이란 가족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지친 심신을 쉴 수 있는 쉼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매님 가정은 오히려 심리적 폭력을 당하는 고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나가려는 것은 가출이지만, 폭력의 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독립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여건이 되는 대로 집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고 사는 자매들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정에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결혼해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 맞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아빠는 이미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매님 아빠는 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대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가정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상사에게 절절매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사람들이 쌓인 것을 힘없는 자기 가족에게 폭력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신들 역시 어린 시절 자기 부모의 희생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사이가 원만치 못하고 가족 간에 정이 오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할지 선행학습을 하지 못했기에 어린 마음에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른 이상적인 가정을 본 경험이 없기에 자기 부모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적인 가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걸려듭니다.

자매님은 오랫동안 미성숙한 아버지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에 집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로부터 심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매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일 년을 되돌아봅니다(김효정 올리안나)

† 찬미예수님!

“시간은 하늘의 영혼”이라는 ‘피타고라스’의 말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인간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할 이 나이에 베풀기보다는 많은 베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할 일이 특히 많았던 지난 열두 달이었습니다.

저는 모국어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소도시의 작은 병원에서 수십 년 유일한 한국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교포분들이 그러하시듯, 저 역시 늘 분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가꾸며 이루어진, 등 따뜻한 가정 없이 홀로이지만 정겨운 이웃,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친구들 곁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직업상 주말근무, 3교대 운운하며 독일성당을 들쭉 날쭉 두서없이 살아왔습니다.

‘여유’라는 말을 소중히 여기는 저에게 평소 ‘시간적 여유’는 절절하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간호사 재직 40년 이상의 이력이 났는데 2017년 퇴직을 하게 되니 하루 24시간, 그토록 갈망하였던 ‘시계 없는 삶’이 저에게도 허락되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연초 우선 3개월만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지내자는 생각으로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니 독일 친구들이 저의 고국 방문 이야기를 듣자며 마련한 자리에서 한국에서 3달 머무르는 중, 가장 좋았던 이야기를 묻기에(물론 어머니 곁에서 형제들과 호호 하하 하던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느 한국 수녀님 곁에서 며칠을,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 신부님을 모시고 모국어로 드린 미사시간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날, 고국의 미사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로 함부르크 한국 신부님의 전화번호를 적으라면서 번호를 또박또박 말하는데 전화번호 끝에 부르는 말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 괴상한 발음의 이름을 철자로 불러 보라고 했더니 바로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의 박철현 신부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녀가 한국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냐고 물었지만, 속으로 집 가까이 독일성당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웬 한인천주교라고 하며 고개를 흔들었더니 며칠 후 또 물었습니다. 미적미적 거리다가 친구의 성의 때문에 신부

님께 전화를 드려 한인천주교회 주소, 미사시간을 여쭙고는 어머니의 엄명을 받고 여동생과 올케가 독일로 오는 가방에 챙겨준 화사한 새 옷까지 챙겨 입고 정거장에서 함부르크 행 기차를 기다리던 중, 1975년 부활 무렵의 추억이 불현 듯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선종하셨지만 인품 좋으신 독일부부 내외분들을 대부모님으로 모시고 영세를 받고, 그해 12월 대림절에 또 다시 그분들을 대부모님으로 모시고 견진성사까지 받았던 이런저런 추억들, 그리고 만감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탓에 집으로 되돌아갈까? 하고 망설여졌지만 선종하신 내외분들이 베풀어주신 그 따스함이 제 온 몸을 감싸는 느낌 때문에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한인천주교회 맨 뒷줄에 앉아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이라는 말이 아치 어설픈 저의 실체인 양 어색하고 쑥스러워 미사 후 곧바로 성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럭저럭 그 다음 주말에도 한인천주교회에서 미사 참례를 하고 이만하면 한인천주교회에 가보라고 재촉한 친구에게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주말 오후, 마침 날씨도 화창하여 산뜻한 마음으로 숲속에서 긴 산책을 즐기고 초저녁을 느긋하게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인천주교회의 한 자매님이 오늘 미사에 안 오셔서 혹시 편찮으신지? 별일은 없으신지? 궁금하여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럴 줄 짐작하고 지난 주 미사 후 서둘러 돌아서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으셨던 모양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화로 인해 당황했는데 통화 끝에 “그럼, 우리 이번 주말 성당에서 만날까요?” 하는 질문에 얼떨결에 “예”라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통화였지만 한국교회 신자와 독일교회 신자들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일 년 전, 고국에서 돌아와 허전해 하는 저의 마음을 감지하고 한국 신부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녀답지 않게 재촉한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동안 사목회장님을 비롯한 자매님들, 마치 기우뚱 걸음으로 징검다리 건너는 듯한 저에게 따스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성당 나올 무렵보다 한국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신 형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제15차 유럽 한인 여성 꾸르실료 교육에 보내주셨습니다. 교육 기간에 본당신부님께서 ‘성사’편을 강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주 폭소를 쏟아냈고, 폭소 끝에 저희들의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면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그 강의 후, 신부님이 자리를 뜬 후에 함부르크 소속 가브리엘라 자매님과
 저는 곳곳이 허리를 펴 “우리 함부르크 신부님”이라면서 뽐냈습니다. 가브
 리엘라 자매님은 “이곳에서 우리 신부님을 만나니 꼭 친정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하여 저도 동의하였는데 저의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저희들의 ‘꾸르실료’ 교육을 위하여 온 정성으로 기도해 주셨음
 을 느낌으로, 마음으로 받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꾸르
 실리스타’ 축하편지도 주시고 뜻 깊은 축하 모임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 교육 장소까지 찾아주신 선배 꾸르실리스타님들, 특히 Osnabrück에서
 왕림해 주신 최한우(바오로) 간사님, 김혜경(아네스)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고받는 마음들, 건네는 손길손길들, 옮기는 발걸음 발걸음에 주
 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 공 동 체 소 식 ❖

❖ 4월 영명죽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울 리 아	김 성 은	24일	보 나	이 보 나
11일	젼 마	이 수 빈	25일	마 르 코	김 희 강 석 진
13일	마르티노	김 성 일			
15일	아나스타시아	박 지 훈	29일	카타리나	이 화 자 정 혜 경 김 희 진
16일	벨라데타	김(강)신자 최 성 자 오 옥 수		카롤리나	김 계 희
				소 피 아	김 주 현 이 명 희
				비 아	신 옥 희



❖ 4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안나	송윤아(H)	30일	비 오	이제명(O)
11일	젼마 갈가니	이혜경(H)			
12일	비시아	강윤진(H)			
21일	안 셀 모	이철민(H)			
29일	카타리나	박진경(H) 최나리(H) 고희경(B)		소 피 아 (St. Sophia)	박영희(B)

❖ 4월 성가번호 ❖

4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7일	122	210	166	121
14일	10	218	169	120
21일	129	128	132	136
28일	찬 양 미 사			

❖ 4월 미사 전례 봉사자 ❖

4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7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1구역
1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2구역
21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3구역
28일	청년회	김잔디(아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청년회	4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2월 24일	3월 3일	3월 10일	3월 17일
주일헌금	248.14	235.65	225.85	215.04
헌납금	120	250	220	320
구좌입금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920.00 * 헌납금 합계 1,83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2월 18일 - 2019년 3월 18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현금납부 :

심동근, 이현목, 최순남, 배성우, 문수진 Sebastian, 현영애,
 육종인, 이정은, 신옥희, 김경미, 김건, 윤석순, 김효정,
 김민옥, 우동천, 이정수, 이종하, 황영선, 방은일, 최장용,
 서세원, 이수웅, 진윤희, 손수희, 이공종, 강순행,

◆ 구좌입금 :

강일남, 이경규, 이영원, 송문규, 최화영, 김형웅, 최현봉,
 이상봉, 남궁춘배, 홍경영, 김치수, 허길조, 이성원, 이명원,
 이정훈, 이석우, 김대현, 허두옥, 박준병, 영희 Eggerstedt,
 권지연 Rabe, 정정숙,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7일 일요일까지 교환사목이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는 에센의 김병수(시몬) 신부님께서 오셔서 고해성사와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 신부님을 환영해 주시고 은총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본당 신부님은 에센으로 가십니다.

2. 4월 14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이 날 축성된 성지가지는 집으로 가지고 가서 벽에 걸린 십자가상 뒤에 두시면 됩니다. 미사 전 13시에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3. 성 주간과 부활 전례를 안내합니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4월 18일 목요일 19시 주교좌성당(Mariendom)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전례 : 4월 19일 금요일 15시 예수 성심 성당(Herz Jesu)
- 부활성야 미사 : 4월 20일 토요일 20시 만남성당 강당
- 부활대축일 미사 : 4월 21일 일요일 15시 예수 성심 성당

4. 4월 21일 일요일은 부활대축일입니다. 부활대축일 미사는 오후 3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는 공동체 나눔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길 청합니다.

5. 4월 2일 화요일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4월 10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 4월 12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모임, 14일 일요일에는 청년 소공동체 모임, 4월 23일 화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 그리고 4월 25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6. 4월 27일 토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청년들이 연수를 다녀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7. 4월 28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날, 첫영성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게 될 학생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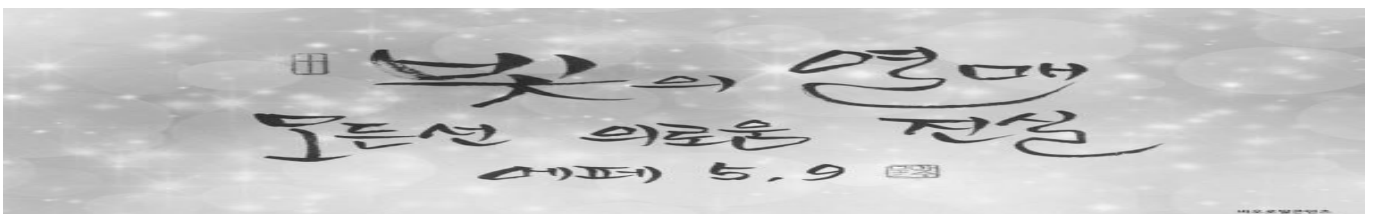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3월 미사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4월 미사는 4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4. 아울러 4월 미사에는 교환사목으로 Essen에서 오신 신부님께서 브레멘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3월 공동체 미사는 2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했습니다.
4. 4월 공동체 미사는 부활성야이므로 미사가 없겠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3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3월 9일(토)에 사순 제1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이날 미사에는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그네스) 교우님의 아드님 내외와 손주들이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3. 정하상(하상 바오로) 형제님이 심한 감기 후 합병증으로 Marienhospital에 입원하였습니다. 쾌유를 바라며 하상바오로 형제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4월 미사는 4월 13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주님 수난 성지주일 미사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3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4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2	화		믿음의 샘 뿌리아	
3	수			
4	목			
5	금	청명, 한식	교환사목 (에센, 김병수 신부님)	
6	토			브레멘 공동체
7	일	사순 제5주일		
8	월			
9	화			
10	수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1	목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오스나브뤼크
14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청년 소공동체, 사목월례회	예비신자 교리
15	월	성 주간 월요일		
16	화	성 주간 화요일		
17	수	성 주간 수요일		
18	목	주님 만찬 성 목요일	Mariendom, 19시 미사	
19	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Herz Jesu, 15시 전례	
20	토	부활성야, 곡우	20시 부활성야 미사	만남성당 강당
21	일	부활대축일		
22	월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23	화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4구역 소공동체	
24	수	부활 팔일 축제 수요일		
25	목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26	금	부활 팔일 축제 금요일		
27	토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	청년회 MT Cuxhaven	
28	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이민의 날)		첫 영성체
29	월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